

미국 마감 상황

2008.12.24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23일 뉴욕증시는 부진한 경기지표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분위기로 상승출발 하였지만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와 미 자동차업체가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며 하락 마감.

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00.28p(1.18%) 떨어진 8,419.49를 기록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. 알코아가 3.7% 오른 가운데 오직 5종목만이 상승을 기록. GM과 포드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15% 정도 주가가 내림.

S&P500 지수는 전일대비 8.47p(0.97%) 떨어진 863.16에 마감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.81p(0.71%) 하락한 1,521.54를 기록.

이날 증시는 지표악화에 대한 내성과 연말 랠리 기대로 인하여 상승 출발. 소비자태도지수가 호조를 보였으나 부진한 주택지표와 미 자동차업체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하락 반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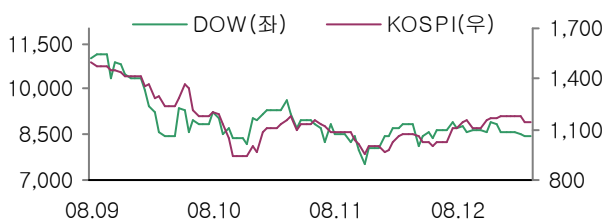
소비자태도지수는 전월의 55.3보다 나아진 60.1을 기록. 미국 3/4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 확정치는 -0.5%를 나타내며 예상치와 같은 수치를 기록.

하지만 11월 신규주택 판매는 2.9% 감소하며 연율 40만7,000채를 기록. 이는 1991년 1월의 40만 1,000채 이후 최저수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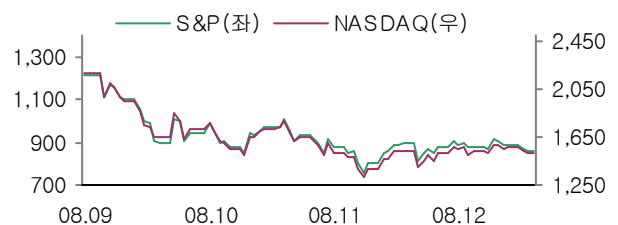
부시 행정부의 174억달러 자동차업체 구제안에도 불구하고 GM과 포드는 이를 연속 주가가 폭락하고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낮추는 등 증시에 악재로 작용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419.49	-1.18	-5.65	-3.13	4.64	-23.57	-37.86
S&P(좌)	863.16	-0.97	-5.48	-2.87	7.89	-28.49	-42.32
NASDAQ(우)	1,521.54	-0.71	-4.30	-1.67	9.91	-30.17	-43.93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- 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- 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